전주정신, 국악관현악 교향곡으로 '탄생'

시민들의 마음 치유하고자 전주시립국악단, 11일 국내 두번째 교향곡 '꽃심' 선보여 소리문화전당 연지홀서 공연

전주시립국악단이 11일 선보일 두번째 국악교향곡 '꽃심' 공연을 위해 연습하고 있다.

전주시립국악단(지휘자 심상욱)은 오는 11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국악교향곡 2번 '꽃심'을 무대에 올리고 전주시 대표 브랜드 공연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8일 밝혔다.

'꽃심'이란 꽃을 피워내는 힘, 새로운 문화와 세상을 열어가는 강인한 힘으로 전주사람들은 대동·풍류·올곧음·창신의 특질이 있으며, 꽃심은 이 네 가지를 다 아우르는 전주의 얼이며 정신이다.

'국악관현악 교향곡 제2번 꽃심'은 전주시립국악단이 위촉한 작곡가 이정호씨가 창작한 우리나라 두 번째 국악교향곡으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의 심신을 위로하기 위한 창작곡이다.

전주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자긍심을 높이고자 '꽃심'의 정신을 되새김하고 어려움을 딛고 함께 일어서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1악장 '대동', 2악장 '풍류', 3악장 '올곧음'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축약하여 발표하며 오는 10월 8일에 4악장 '창신'을 포함한 전 악장을 연주한다.

또한 전국 청소년 국악연주자를 대상으로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전주시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과의 협연도 마련하여 지역 국악발전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주시립예술단에서는 코로나사태로 힘든 시민들을 위해 5~6월 동안 '토닥토닥 힐링공연'을 기획하여 매주 월·수 중식시간대에 '찾아가는 공연'과 금요일 야간에 '버스킹 공연'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마음치유를 위한 창작곡으로는 시립합창단에서 '그대가 있어 우리는', '봄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공연은 무료관람이며 나루컬쳐(www.narucultue.com)를 통해 선착순 예매할 수 있다. 공연일정 및 예약정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술단운영사업소(063-253-5250)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정읍사문화제 부도상' 정읍시, 후보자 추천 접수

1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정읍에서는 매년 가을이면 백제시대 한 여인의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백제가요 정읍사'를 주제로 한 문화제가 열린다.

올해도 제31회 정읍사문화제가 오는 9월 26일부터 이틀간 정읍사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이와 관련 (사)정읍사문화제 제전위원회(이사장 조택수)는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제31회 정읍사문화제 '부도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부도상 추천 후보 대상은 5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사회적·교육적으로 귀감이 되는 부도와 부덕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즉, 남편과 부모를 공경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하며, 부녀자로서 지녀야 할 어질고 너그러운 덕행을 갖춘 여성이다.

희망자는 읍·면·동장이나 기관단체장, 또는 봉사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사)정읍사문화제 제전위원회 사무국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제전위원회는 서류심사와 심사위원의 현지실사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상은 9월 26일 제31회 정읍사문화제 기념식에서 있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사)정읍사문화제제전위원회 홈페이지(www.jchf.or.kr)를 참고하거나 사무실(☎532-8880)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천 환경개선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전화 063-288-9700

정읍시가 마련한 한옥 자원 활용 야간 상설공연 '가인과 예가주'

'가인과 예가주', 기대감 '쑥'

정읍시, 한옥 자원 활용 야간 상설공연 12일 개막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을 치유하는 공연이 정읍고택문화체험관에서 펼쳐진다.

정갈한 식사와 연지에 담은 연꽃차, 그리고 우리 전통주의 오묘한 맛과 옛 멋의 가치를 아름답게 풀어낸 '가인과 예가주'가 오는 12일부터 무대에 오른다.

한옥 자원을 활용한 음악 무용극 '가인과 예가주'는 6월 20일과 7월 3일을 제외한 7월 25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총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공연은 병자호란을 시대적 배경으로 남녀 간의 사랑과 생고을 정읍에서 전해 내려온 최고의 전통주 비법을 활용해 나라를 구한다는 논픽션 이야기로 구성됐다.

당시 예인들의 춤과 노래를 재현한 음악 무용극으로 조명과 음악 등 다양한 공연예술 요소들이 가미되어 보다 화려하게 꾸며진다.

공연에 앞서 한옥의 뛰어난 서정적인 정취 속에서 저녁 식사와 직접 담근 전통주(예가주)를 맛볼 수 있다.

또, 대청마루에서 가야금 연주를 들으며 선비문화의 풍류를 느낄 수 있는 차 시음을 한 후 어둠이 짙어지면 공연 '가인과 예가주'를 관람하게 된다.

(사)한옥마을 사람들 고혜선 대표는 "작년에 이어 이번 공연도 정읍시민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고자 성심껏 준비했다"며 "한국무용의 아름다움과 현대적 음악의 조화를 통해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공연으로 공연문화를 향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인과 예가주' 음악 무용극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www.ticket.ineterpark.com)에서 가능하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시민대학, 오늘부터 본격 운영

11월 20일까지… 도서관 등 12곳서 총 26개 강좌 진행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배움의 기쁨을 주고 독서문화를 확산시키는 대표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전주시민대학을 본격 운영키로 했다.

시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아실현을 돕기 위해 수강생 432명과 함께 '2020 전주시민대학'을 운영한다.

시는 전주시 도서관 10곳과 중산작은도서관과 꿈밭장애인 작은도서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인문서양 고전읽기 △그림책 교육지도 △아동독서지도 △하부르타 △색채심리 △심리학으로 성장하기 등 독서와 자녀교육, 인문교양 분야 총 26개 과목으로 진행된다.

대표적으로 완산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자연숲, 생태교육'은 모집인원의 2배가 넘는 높은 접수율로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사계절 숲의 생태계 모습과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울한 마음을 치료하는 힐링의 시간을 제공한다.

또한 올해에는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도전! 작가되기 △인물로 보는 한국사 △차 문화사 △영화인문학 △캘리그라피 △하부르타 등 6개 과목을 신규 개설해 보다 다양한 경험을 지원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도전! 작가되기'에서는 수강생이 직접 쓴 동화, 시, 수필 등을 모아 책을 만들어 전주독서대전 기간 동안 전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윤상 기자